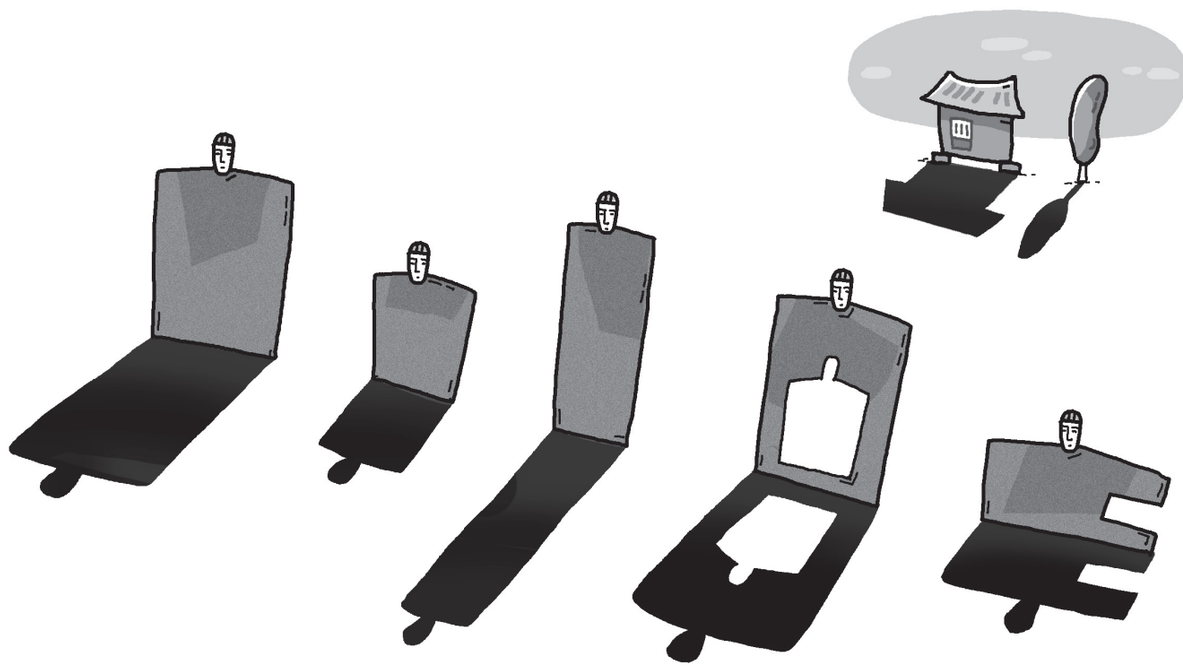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건 무한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한마디, 짧은 말이지마는 똑똑히 들으세요. 공부하는 분들이 보는 걸 위주로 하고 듣는 걸 위주로 하고, 모두 그렇게 뚫어지게 꿰뚫어서 보는 거를 아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에 "보는 것도 놔라. 듣는 것도 마음에 놔라." 이러는 원인은 대자비의, 만법의 기능을 가진 그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를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요런 거를 다 놓음으로써, 즉 말하자면 안 되는 거 되는 거,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요건 요렇게 돼 있고, 팔자는 요렇게 돼 있고 죄는 요렇게 지어져 있고 요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볼 때에, 그러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요건 죄를 요렇게 지었으니까 요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놓은 거니까 꼭 자기네들이 받아야만 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5년 징역을 받았으면 5년 징역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놔라. 꿰뚫어 보는 거까지도 다 놔라. 꿰뚫어 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놔라." 이런 것은 5년 징역을 받을 팔자도 징역을 안 받는 것도 묵살해 놓고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 자리니라. 부처님 자리에는 어디의 뭐든지, 일체 만법의 근원에는 닥치는 대로 타 버리느니라." 이런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남들은 꿰뚫어 본다는데, 남은 벌써 다 안다는데….' 아, 이거를 원하거든. 자기에게는 그런 게 외려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오는데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든 꿰뚫어 보게 알든 그것은 놔야 돼. 우리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가는 길에 이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참섭하러 가는 게 아니야, 응? 얘기했죠? 가는 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물이 있고 여기 흙이 있고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끄달리러 가는 게 아니야. 곧바로 지금 가서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찌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걸 위주로 해서 가느냐 이거야.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서 참 어렵게 살던 중에,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요양을 갔는데, 누가 말하기를 거북이 목을 따서 피를 내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했대요. 그 말을 믿고서 저 바닷가에 원두막 천막을 쳐 놓고선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거북이를 그저, 지금이야 드물지마는 예전이야 좀 많았습니까? 고기도 많고 조개도 많고 뭐, 많았죠. 거북이 엉금엉금 기는 거 다 잡아다가 모가지 따서 그냥 피를 먹은 거야. 그러곤 휙 내던지고. 피 빨아 먹곤 휙 내던지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준수한 스님 한 분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 말고 거기 앉아 계시더니 하는 소리가 그 젊은 사람더러 "젊은이!" "예." "자네는 죽어서 꼭 거북이가 되겠네." 그러거든. 그래서 "어째서 그러합니까?" 하고 물으니 "자네가 모르겠나, 그거를? 남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 갔으니 자네도 거북이가 돼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천 년을 그렇게 갚아야 사람이 될까 말까 해. 사람 되기가 얼마큼 어려웠다는 거를 자네가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문제가 있네. 자네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앗아 가다니 자네가 천 년을 도를 닦는다고 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할 것일세." 하고 보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거든.

그런데 그 얼굴 모습이랑 그 스님의 준수한 모습이 자기한테서 떠나질 않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야. 여북하면 어머님더러, 그렇게 듣고 가서 하는 소리가 "어머님, 어머님이 나로 인해서 그러한 죄상을 지으신 거니까, 어머니가 짊어지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그 죄상까지도 제가 다 짊어지고 가렵니다." 하고 그냥 물로 풍덩 들어간 거야. 물로 풍덩 들어가니까 용왕이 "너는 거북이로서 천 년을 지내되, 네가 남의 생명을 앗지 않고 천 년을 지내야 하느니라." 그러니 거북이로 천 년을 남의 생명을 앗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잡아먹고 사는 건데 하나도 잡아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소?

자기는 그래도 선뜻 대답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북이의 몸을 받아 가지고서 돌 밑 아니면 흙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물 위에 뜨지 않고, 뜨면 또 그 빛도 못 갚을까 봐, 또 거북이의 몸을 잡아먹히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땅속에 깊숙이, 또 모래 속에 깊숙이, 또 때로는 돌 밑에 깊숙이 들어 있으면서 앙금을 먹어 가면서 산 거야, 앙금! 물속의 풀이 썩은 앙금 또는 모든 산 생물의 그 앙금, 또는 이런 거품 내보내는 거, 그런 거를 먹고 그대로 사는 거라.

배가 고플 때는 모래를 집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도중에, 사람으로 치면, 즉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서양에 가서도 살고 공부를 해야 하고, 서양에 갔으면 동양으로 가야 하고 동양에 갔으면 남양으로 가야 하고 그렇기에 천방지축 어딘지를 모르고 그 물이 있는 데는 다 거치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태어나고 잡아먹히고 또 태어나고 그러기를, 천 년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야. 반복해 가지고 오백 년이 지나니까 오백 년을 또 지낼 텐데 그 오백 년 동안에는 자기 몸이 점점 점점 잡아먹히질 않고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천 년 만에는 참 무지하게 커졌더랍니다.

그래서 인제는, 내가 이것을 이래도 다 못 갚았으니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목을 따서 피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 위에 풍덩 떴단 말이야. 그 큰 놈의 거북이가 뭉텅 뜨니까 아, 고기잡이들의 그물에 턱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니까 이 고기잡이들이 그걸 따 먹지도 않고 또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펄펄 뛰니까 아, 그 입을 벌리고선 자기네들 먹던 술을 먹인 거야. 취했지. 취해서 아무 정신도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곤 또 물에다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하! 내가 아직까지도 그 죄가 남았구나.' 하고서는 또 깊숙이 들어가서 지내던 중,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의 그 스님 얼굴이 그 맑은 물에 탁 비치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인제 다 됐느니라. 어서 저 모래톱으로 나가거라." 하거든. 그러면서 그 스님의 모습이 싹 없어지니, 야, 그 스님이 육지에서도 보였고, 천 년 만에 또 물속에서 보였으니 그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래서 스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서는 다시 모래톱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